

白頭山 · 金剛山 · 冠帽山 等

北의 名勝 古蹟도 名譽國立公園으로 制定 公布하라

吳 判 龍

피맺힌 分斷 40年의 歲月이 흘렀다. 우리는 以北땅에 두고 온 많은 名勝古蹟地를 차츰 忘却해 가고 있음을 否認못한다.

한때 우리들은 日本을 가리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입버릇 처럼 말했다. 60萬 僑胞가 살고 있는데도 基因하지만 商易關係는 勿論 各種 親善行事로 많은 人士가 來往하게 되어 地理나 名勝地까지도 어둡지 않게 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東南亞 一帶는 勿論 歐洲·北·南美洲와 中東·아프리카 地域에 까지 進出되어 온갖 나라의 景觀地나 古蹟에 接하게 되어 누구나 事情에 그다지 서툴지 않게 되어 가고 있다. 北韓땅도 엄연히 憲法上 우리 領土인데도 不拘하고 이데오르기의 障壁으로 因해 學問的으로 研究하는 것 조차 忌避해 온 듯하다.

果然 이대로 가야 옳은 것인가. 정녕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 憲法 第3條(領土)에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附屬島嶼로 한다」고 明示돼 있다.

強大國의 國際政治의 祭物로서 一時的으로 分斷이 돼있다 뿐이다.

한때 大統領令으로 設置되었던 以北 5道廳도 「以北 5道에 關한 特別措置法」制定으로 失地恢復에 對備한 行政研究를 하게 되고 數百萬 失鄉民의 精神的인 支柱役割을 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事實이다.

知事아래 名譽市長, 郡守와 邑面長까지 任命되어 各郡 民會가 郡誌까지도 發行하면서 온갖

獎學事業을 遂行하고 있다.

各郡마다 꿈에도 잊지 못하게 그리운 두고 온 아름다운 山河와 古蹟의 寫眞을 모아 鄉愁를 달래고 자랑하는 展示도 하고 있다. 愛鄉心 고취와 失地恢復의 決意를 굳게 간직하려는 뜻도 담겨 있겠다. 間或 外信을 통해 白頭山 높이와 面積이 修正되었다는 등 白頭山 어느 한 쪽이 內外觀光客이 버린 쓰레기로 더럽혀지고 있다는 등 지극히 短篇의이어서 學問的인 領域은 알 수가 없다. 或者는 우리나라의 埋藏地下 資源이나 花崗石의 分布에 對하여 심지어 稀貴鑛인 탄타늄鑛 등까지 日本의 地質學者나 鉦山家들이 놀라울 만치 正確히 알고 있다고 한다. 우리 學者들이 果然 日本은 次置하고 우리 領土인 北쪽의 植生이나 地下資源 등에 對하여 日本學者가 우리나라를 알고 있는 만큼이나 研究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學術的으로는 以北땅의 名勝 古蹟地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民族이 集團하고 있는 옛 高句麗 땅에까지도 손을 뻗쳐야 할 것이다.

最近 入手된 白頭山 靈峰과 天池의 原色 寫眞이 곳곳에 걸린 것을 보고 우리 民族正氣의 震源地인 白頭山을 그리워하는 國民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그 밖에 白頭山 다음 가는 2,541m의 冠帽山(우리나라서 아침 햇빛을 제일 먼저 받는 山) 絶景인 金剛山, 七宝山, 옛날 蓋馬國이었던 狼林山(2,003m)의 原始林하며 檀君遺

蹟과 西山大師의 內院이 있는 妙香山(1,909m) 九月山 등 名山에 對해서도 비슷한 것이다. 分斷 40年만에 生성한 白頭山 天池의 原色 寫眞이 新聞紙上에 실린 것도 歷史的인 事件이오. 커다란 收穫의 하나로 본다.

日帝의 사나운 政治 아래서 가슴에 피가 맺힐 때면 바람을 메고 鴨綠江 上流에서부터 漢拏山에 이르기까지 곳곳의 名山大川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亡國의 恨을 달래고 民族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많은 「朝鮮山水歌」를 지었던 鷺山(李殷相)은 54년에 펴낸 그의 著書 「祖國江山」에서 이렇게 強調하였다. 『8. 15解放은 民族과 歷史와 國權의 光復뿐만 아니라 國土의 光復이었다... 그러나 또다시 10년 歲月을 보내고 나매 스스로 민망스러운 생각을 참을 길 없어 이 原稿를 다듬게 된 것이다...祖國에 對한 나의 애뜻한 사랑을 노래해 본 것이다. 조국은 우리들의 宗教다. 그러 길래 거기 讚美歌를 바쳐야겠다. 祖國은 우리의 神佛이다. 그러 길래 거기에 眞心으로 歸命해야겠다...祖國의 이름 아래서 살고 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爲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祖國의 江山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統一의 그 날이 올 때까지 爲先 名譽라는 冠詞를 붙여서라도 民族의 마음속 깊이 간직된 白頭山 만은 優先的으로 國立公園으로 制定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愛國歌에서 부터 前述한 白頭靈峰과 天池의 寫眞들을 남들에게 어떻게 說明해야 할 것인가. 離散家族찾기, 經濟會談도 重要하지만 植生 등 科學者들의 會談 등도 重要하지 않을가 싶다. 6千萬 民族을 代辯해서 立法府에서부터 超黨의 姿勢로 臨하여 하루 빨리 立案되어 政府가 公布하길 바라는 바이다.

※ 附記: 이 問題에 對하여 李載錫 咸南 知事와 李碩峰 平北知事は 「當然한 일이며 좋은 일이지만 法的根據가 문제일 뿐 反對할 아무런 理由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72年 建設部가 太平洋, 亞細亞地域의 觀光을 照明하기 위해 發刊한 金剛山의 寫眞圖錄같은 事業이나 國土統一院의 이에 對한 研究도 좀더 活性化되었으면 싶다.

지난 6월에 發행된 「환경 그리고 조경」誌 9호에 비록 部分的이나마 白頭山의 植物探訪記 (外誌에서)가 掲載된것도 경의를 표한다.

◇ 北韓의 名勝地 概要 ◇

▲白頭山: 우리 國土의 北端 咸北, 茂山西北에 있으며 높이 2,744m. 山頂에 주위 80里되는 天池가 있고 中腹에 天坪이란 별판이 있다. 우리 民族의 가장 오랜 옛날 朝鮮이란 國號로 建國된 곳이라 전한다. 우리나라 山의 祖宗일 뿐 아니라 政治, 經濟, 文化 모든 發祥地라 할 수 있다.

▲冠帽山: 白頭山 다음 가는 高山. 咸北 鏡城郡과 茂山郡 사이에 있으며, 높이 2,541m. 小長白山脈에 이어 이 山을 中心으로 渡正山, 立石山, 虹臺峰, 白馬峰, 兜峰, 机床峰 등 2,000m 넘는 산이 한 덩어리가 돼 있어 「韓國의 알프스」라고도 한다.

▲七寶山: 咸北, 明川 동쪽에 있고 최고봉인 玉臺峰이 774m. 옛부터 아름답기로 이름 높고 山中의 開心洞은 물과 돌이 너무나 맑아 文字 그대로 가슴이 열린다고. 뒤로 小長白山脈을 업고 앞으로 東海를 안은 位置부터 異彩. 千佛峰, 萬獅峰 등 奇岩多數.

▲狼林山: 平南 寧遠郡 東쪽에 있으며, 높이 2,003m. 白頭山 줄기가 뻗어 오다 成鏡道와 平安道の 어둠에서 中共(滿洲)쪽에 까지 걸치어 蓋馬高原을 이룬다. 여기가 蓋馬國의 옛터. 이 지대를 세로 질러 成鏡道와 平安道 사이에 있는 것이 狼林山脈.

森林이 鬱蒼하여 太古 그대로 었다고.

▲妙香山: 平北 寧邊고을(素月의 진달래 노래와 北水口門 등으로 알려진 곳)과 熙川郡 사이에 높이는 1,909m. 최고는 毗盧峰이며 香爐峰이 有名.

西山大師가 일찌기 이 山을 讚美. 險하고 아름답음을 兼備 한 山. 檀君의 遺蹟도 있고 壬亂때 精神的, 獻身的으로 나라와 겨레를 救하려고 애쓴 西山大師를 잊지 못함. 그가 居한 內院에는 牧童의 化身이란 傳說이 있는 호독조(呼犢鳥)가 비오는 날 구슬피 운다고.

▲白馬山: 平北 義洲 남쪽에 있고 높이는 409m. 「이스랏, 「아가워」 등 山中 열매가 많다. 山頂에서면 멀리 多獅島쪽 바다와 鴨綠江 건너편까지 眺望된다. 이 山의 山城은 高麗 姜邯贊 장군이 쌓았다하며 李朝 仁祖때 林業慶 장군이 이 城에 雄據하면서 奇異한 戰術로 淸軍을 擊退시킨 歷史上 잊지 못할 곳.

▲錦繡山：平壤城을 내려다 보는 山. 狼林山 줄기를 타고 내려다 그림같이 솟은 名勝地. 아름답으로 이름난 山인데 乙密臺와 升丹峰이 마주 솟은 아래로 大同江이 흐른다. 高句麗의 歷史와 精神을 뽑아 버리면 平壤은 빛나지 못할 것이다.

▲九月山：黃海道 殷栗과 信川 사이에 있고 思皇峰 높이는 954m. 阿斯達, 弓忽, 三危 등 옛이름이 있다. 우리나라 西쪽에 있는 山으로선 歷史, 文化, 風景, 무엇으로나 가장 뛰어난 山. 三聖祠趾는 檀君을 모신 祠堂이고 唐莊坪은 옛 조선의 都邑. 貝葉寺라는 寺刹은 佛敎文化로써 손꼽을 곳.

▲長壽山：黃海道 載寧고을 北에 있으며 海西金剛이라 불리는 名勝地. 높이는 747m. 열두구비 돌아 들어가는 溪谷과 丹楓으로 有名. 壬亂때 隣近고을 百姓이 이 山의 山城에서 避亂했다. 이 山의 妙音寺와 懸菴이 絶景이고 山徑이 많다.

▲天磨山과 朴淵瀑布：高麗의 서울인 開城 북쪽에 있으며 높이는 762m. 大興洞 골짜기 물이 天磨山과 聖居山 사이의 絶壁으로 떨어지니 이것이 朴淵瀑布다. 靑石洞등 風致좋은 곳이 많기도 하지만 이 속에서 글 짓고 노래한 道學의 徐花潭, 名筆의 韓石峰, 인물 예쁘던 黃眞伊들을 잊지 못한다.

▲金剛山：江原道 高城 서쪽에 있으며 높이는 1,638m. 세계에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山. 山峰이 너무 많아 1만2천봉이라 부르며 內金剛은 물자랑,

外金剛은 돌자랑, 그 밖에 海金剛까지 있어 造化의 神秘를 実感한다.

이 山에는 新羅가 亡하자 숨어 들어와 배움을 입고 풀 뿌리로 延命하다가 新羅의 마지막 임금인 敬順王의 아드님, 세상이 麻衣太子라 부르는 그의 무덤이 있다.

▲雪峰山：咸南 安邊 서남쪽에 칼로 깎은 듯 날카로이 솟았다. 높이 942m. 이 山에 有名한 釋王寺가 있다. 李太祖가 임금이 되기 前에 이상한 꿈을 꾸던 일이 있어 때마침 이 山에서 修道하던 無學大師에게 解夢을 부탁한 즉 將次 임금이 될 꿈이라 풀어 드려 그가 뒷날 大師를 위해 세워준 절이라 전해온다.

▲鴨綠江：우리나라와 中共(만주) 사이에 國境을 지은 江으로 白頭山에서 西海까지 970km. 2천리를 흐르는 동안 굽이마다 絶壁과 진퍼리도 열려 風景의 變化도 많지만 江 건너 高句麗 옛땅을 바라 볼 수 있다.

▲豆滿江：우리나라와 中共(만주)사이 동쪽 國境으로 白頭山에서 흘러 東海까지 길이가 521km. 길이로 세째간다. 「말먹여 豆滿江물 말리오리라」는 南怡장군의 노래도 있거니와 高麗忠臣 尹璣장군과 吳應鼎 장군이 女眞族을 물리치고 九城을 쌓았다.

李朝때는 金宗瑞가 六鎭을 두어 우리 계례의 北方 發展을 꾀한 곳. (자료: 祖國江山등 편역)

(筆者: 事務局長)

500字 知識

Green Line Park

(綠色 線定公園)

最近 美国에서 創案된 새로운 方式의 自然公園을 말한다.

国立公園은 土地를 買収하여 各種 利用 施設을 設置하는 등 先行되는 作業이 많은데 反해 이 “綠色 線定公園”은 地圖上에 綠色線을 그어 놓고 그線內의 自然景觀을 保全하면서 自然을 利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美国的 国立公園 占用率은 国土의 1.5%程度인데 아직도 国立公園 以外에 景致 좋은 名勝地가 많다.

그런데 土地利用, 財政 등으로 이 以上 国立公園을 새로 指定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發想된 것이 Green Line Park (綠色線定公園)이었다.

土地 所有權을 確保하는 것이 아니고(美国的 国立公園은 国有地로 되어 있음) 契約과 地役權 등 모든 權限을 活用할 수 있게 하면서 公園으로 利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国立公園(地域制 公園) 制度와 共通되는 점이 없지 않다.